

第 34回 堤川市議會 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開會式
堤川市議會事務局

일시 : 1998년 1월 20일 (화) 11:00

제34회 제천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계장 정광화)

(11시개의)

○議事係長 鄭珖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世來 15만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

우리민족의 늠름한 기상을 상징하는 호랑이의 포효와 같이 힘이 넘치는 희망찬 무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1월이면 우리 모두는 한해에 대한 큰 설계와 계획을 세워 성실하고 착실한 실천으로 기대하였던 생각만큼의 성과를 거두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라 생각합니다.

15만 전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시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98년도에 이루겠다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시 의원 모두는 힘과 뜻을 모아 기원을 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몸소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일이지

만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밝아야만 할 때 웬지 무거울 따름입니다. 이 어려운 IMF 시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국민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금모으기 운동과 달려모으기 운동, 그리고 자가용 함께타기 등 일상생활의 모든 경제 주체가 솔선수범하여 근검절약 정신 대열에 함께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 진정으로 우리시 전의원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국민은 6.25와 70년대 유류파동의 어려운 국난에도 세계사에 우뚝선 경제대국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장인 저를 비롯한 전의원과 함께 우리 시민 모두가 이 시련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작은 일에서부터 국가 경영의 큰 경제까지 근검절약에 대한 의지와 실천으로 국력을 한데 모을 때 희망찬 번영의 앞날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위하여 우리시의원 모두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의회에서는 '98년 의정방향을 『성숙한 의회』 『함께 생각하는 의정』 『공부하는 의원』으로 정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제도와 정책을 찾아서 개선하는 선진 의회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4대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 2대 의회를 마무리 하고 새로 선출된 3대 의회가 출범하여 차질없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의 기반 마련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회와 해양 도시인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의회간의 자매결연에 따른 농·어민 등 시, 구민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싱싱한 농수산물 지역특산품을 상호 공급

하는 유통 판로 확보에도 의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개최되는 제34회 임시회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뜻있고 의미있는 임시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98년 제천시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어려운 시기일 수록 여러분들의 높은 지식을 토대로 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성과 효과성 등을 중점 분석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무인년 한해 제천시민 모두의 가정에서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의원 여러분과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앞날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事係長 鄭珖和 이상으로 제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